광주시의회 또 '갬코' 공방 … 예산안 심사 파행

행자위-집행부 이어 의원들간 입장차 정회 사태

김상호 실장 "의회 경시 의도 없었다" 유감 표명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7일 '갬코(한미합작투자법인)' 관련 문제로 또다시 공방을 벌이면서 광주시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사가 파행을 빚었다.

행자위 소속 의원들과 집행부 간부 사이의 공방에 이어 의원들끼리 입장차를 보이면서 한차례 정회사태를 빚었으며, 문화관광정책실장의 유감 표명으로 일단락됐다.

행자위는 이날 예산안 심사 대신 '갬코'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대한 공무원의 성명사태를 안건으로 상정해 의사 일정을 진행했다.

김민종 의원과 서정성 의원 등은 "문화관광정책실 직원들의 집단 성명이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고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서 의원은 특히 "갬코와 관련해 4가지 점을 들어 사기극으로 규정했는데 유독 홍인화 의원의 긴급 현안질의만 문제삼아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처음 성명을 발의한 직원이 누구인지 밝히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상호 문화관광정책실장은 "의회를 경시하거나 의정활동을 제한하고자 하는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며 "다만 성명서를 내다보니 의회를 경시하는 것처럼 잘못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LA테스트를 사기극이라고 규정하며 광주시 공무원들을 사기 치는 사람 취급하고, 현안질의 당시 4000여만원대 현금다발을 들고 나와 마치 비리 공무원을 연상케 한 것이 직원들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며 "직원들의 이름을 밝힐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갬코' 관련 공방이 계속해서 이뤄지자 나종천 의원은 "예산심의를 해야 할 시간에 예산심의와 전혀 상관없는 문제로 혼선이 일고 있다"며 "갬코와 관련한 정확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서 자신있게 질문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 의원은 "자신있게 하고 있잖아요"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양 의원 간 고성이 오가 행자위가 한때 정회 됐다가 속개됐다.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홍인화 위원장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의회의 고유 역할"이라며 "여러 가지 제보를 받고 고민 끝에 LA테스트는 사기극이라는 내용으로 긴급 현안질의를 했는데, 이런 의정활동을 무력화시켰다. 윗분이 시킨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성명서로 인해 여러 억측을 낳고 의정활동을 제약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자위는 김 실장의 유감 표명에 따라 1시간30여분 만에 예산안 심사에 나섰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美, 中 방공식별구역 '무시'

B-52 폭격기 2대 훈련 비행

사전 통보 안해 … 긴장 고조

중국이 영유권 분쟁 지역을 포함해 방공식별구역(ADIZ)을 설정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두 대의 미국 B-52 전략 폭격기가 이 구역을 관통해 비행했다.

미국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무시 전략'으로 해석돼 이 지역에서의 군사·외교 긴장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B-52 폭격기는 중국 측에 알리지 않은 채 워싱턴DC 현지 시간으로 지난 25일 오후 7시께 괌에서 이륙해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동중국해 상공을 비무장 상태로 비행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실의 스티븐 워런 대령은 26일 이번 비행은 정규 '코럴 라이트닝'(Coral Lightning) 훈련의 하나로 오래전에 계획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런 대령은 "어젯밤 계획된 일정과 통상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센카쿠 지역에서 훈련 비행을 했다. 두 대의 항공기가 괌에서 이륙해 훈련을 소화하고 나서 괌으로 귀환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측에 사전에 비행 계획을 통보하지 않았고 주파수 등도 등록하지 않았으며 이 구역에 1시간 이내로 머물면서 '사고 없이' 임무를 완수했다고 강조했다.

또 비행 중 중국 측의 전투기와 맞닥뜨리지 않는 등 중국의 별도 대응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워런 대령은 구체적인 기종은 밝히지 않았으나 B-52 전략 폭격기 2대가 동원됐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중국은 지난 23일 우리나라와 일본이 각각 실효 지배 중인 이어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상공을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해 주변국과 미국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B-52 폭격기 훈련이 이뤄진 당일에도 중국의 처사를 '불필요한 선동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B-52 폭격기의 훈련 비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각국의 이견은 위협이나 선동적인 언사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되며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광주서 '진보당 해산 철회 결의안' 잇단 부결

광산·서구 등 기초의회서

광주지역 기초의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심판 철회 촉구 결의안'이 잇따라 부결됐다.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은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의 정당 해산에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며 반발하고 나서 갈등이 예상된다.

광산구의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심판 철회 촉구 결의안'을 회의에 부쳤으나 전체 의원 15명 가운데 6명이 참석해 정족수 미달로 결의안 채택이 무산됐다.

민주당 소속인 차경섭 의장과 진보당 소속 의원 5명이 참석했으며, 민주당(8명), 새누리당(1명) 등 9명은 불참했다.

서구의회도 이날 결의안을 회의에 올렸으나 13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 8명이 반대하면서 부결됐다.

남구와 북구의회에서도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같은 발의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의장단 차원에서 안건 상정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 의원들이 진보당 해산 철회를 반대함으로써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정당 해산에 암묵적으로 동의를 한 것"이라며 비난했다.

이어 "결의안 반대가 민주당 광주시당의 입장이라면, 광주 민주당은 광주시민 앞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광주시당은 "시당이 소속 구의회, 시의회 의원들의 지역구 활동에 제한을 두거나 방향을 제시하진 않는다. 의원들이 지역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판단한 사안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전시관 둘러보는 朴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 '2013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를 방문, 광주 전시관에서 수술로봇 시연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욱 의원 발의 '전남 다문화교육 진흥조례안' 의결

전남도의회(의장 김재무)는 27일 제28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를 열고, 권욱(민주·목포2·사진) 교육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을 지원하고, 사회 통합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 따라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를 구성해 다문화교육 전반에 대해 심의하도록 했다.

또 다문화 가족 학생 교육과 관련한 지역별 거점학교를 운영하고, 사회 구성원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학생, 교원, 학부모등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도 실시한다.

권욱 위원장은 "다문화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혁신 통해 지역발전 정책·비전 공유"

'대한민국 희망박람회' 부산서 개막

지역발전 정책과 비전을 공유하는 '2013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가 27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하고 나흘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개막식에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장관 7명과 허남식 부산시장, 강운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 등 12개 시·도지사, 주요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혁신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끈 성공사례를 많이 갖고 있다"면서 부산 산복도로 르네상스와 전주 한옥마을을 거론한 뒤 "자치단체가 지역 공동체와 함께 발전계획을 주도하면 정부는 맞춤형 지원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환영사에서 "지역희망박람회는 중앙과 지방의 소통, 지역 간 협업체제를 강화해 지역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박람회는 중앙정부와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하는 국내 유일의 지역발전 종합행사로 2004년부터 매년 열린다.

지역발전위원회와 17개 시·도, 12개 관계 부처가 공동 주최하는 올해는 산업과 경제에 중점을 뒀던 과거와 달리 경제·교육·문화·복지 등이 어우러지는 행사로 진행된다.

'지역에 희망을, 주민에게 행복을'이라는 표어 아래 각 시·도의 지역발전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 지역발전 정책의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콘퍼런스, 다른 지역의 발전 사례를 공유하는 우수사례 발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지역콘서트, 희망이음 토크쇼 등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사도 마련됐다.

박람회 기간에 코트라는 중국, 일본 등 7개국 41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외국인투자유치 설명회를 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측면 지원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베트남전 영웅' 채명신 장군 서울현충원 사병묘역 묻히다

고인 유언 따라

"나를 파월 장병이 묻혀 있는 사병묘역에 묻어달라."

지난 25일 별세한 채명신(예비역 중장) 초대 주월남 한국군 사령관이 생전 이 같은 유언을 남겼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27일 고인이 남긴 이 유언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 결과를 유족에게 통보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밝혔다.

별세한 장군은 현충원에 마련된 장군 묘역에 안장되는데 고인은 별세하기 전 유족에게 사병 묘역에 묻히길 강력히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을 잘 아는 한 인사는 "사령관님이 평소 '장군 묘역에 안 간다. 월남전(베트남전) 전우들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사후에 이들과 서울 동작동에 같이 묻히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장군이 사병묘역에 안장된 전례가 없고 국방부도 난색을 표명하자 부인 문정인씨가 남편의 유언을 받아들여 달라는 취지로 청와대에 편지까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런 사연을 전해듣고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고인의 유언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군이 사병 묘역에 안장되는 것은 서울현충원 설립 사상 처음이다.

'베트남전 영웅'인 고인이 부하들과 함께 묻히게 될 묘지 크기는 일반 사병과 같은 3.3㎡이다. 고인은 주월남 한국군 사령관 당시 "100명의 베트공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양민을 보호하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하는 등 베트남전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다.

장례는 28일 서울현충원에서 권오성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육군장'으로 치러진다. /연합뉴스

나주 혁신도시 · 강변도시
남다른 부동산 투자법!
매물을 팔려는데!?
매물을 사려는데!?
고객 여러분의 고민을
솔로몬 부동산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업용지 / 근생용지/ 점포주택지 / 주차장용지
바로 지금이 기회!!
나주 혁신도시 전문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 H. 010-5587-3080 / 010-3505-8005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 가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 첨단 월계동 LC타워 2층 상가 960㎡ 매 18억(분할 매매 및 임대 가능)(대형병원,학원,프렌차이즈 적합)
* 교원공제부근 1층상가 225㎡ 매 12억3천(보1억3천,월600만 포함)유명프랜차이즈 입점 중
* 서구 아파트상가 1,800㎡(점포 7칸) 매10억 (보 1억1천, 월610만, 융5억9천 포함)
* 사우나건물(8층) 17억5천(보8천,월800만 대출 9억5천),직영 월천만수입
* 도천동 신축창고 대지2,500㎡,건평500㎡ 17억
* 벽진동 창고,고물상용지 2,900㎡ 임대 보2천/월200
대지/전답
* 상무지구 대지 405㎡(122평) 매 8억5천
* 용전동 전(자연녹지) 1,180㎡ 매5억3천
* 완도 약산 전(계획관리) 11,000㎡ 매 8억4천
* 장흥 용산면 전,임야 101,851㎡ 매 6억
* 남평 우산리 전(계획관리) 17,000㎡ 매 5억2천
기타
* 영암 삼호중공업인근 주유소 매 9억(대출 5억)
* 곡성 목사동 식당 1,750㎡ 매 3억9천(급매,조정가)
* 담양 월산면 가든식당 1,520㎡ 매 3억8천
광주,전남권 매도·매수 상담,접수 환영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5536-0382 Fax 062) 974-0449

금당공인중개사
매매·교환·설계·시공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감정가 이하
◦ 화순읍 군청 민원실 인근 대로변 2종 주거지 492㎡(149) 은행2억 감정 3억6천에 매도, 조정가능
◦ 용산동 재개발지역 주택 대지 40평 은행 4천 매도 8200
◦ 충장로5가 버스도로 대지777㎡(235) 공시지가 17억7천선 오피스텔, 상가개발적합 10억2천
◦ 함평군 영업 잘되는 여관 대지 320평 건평211평 객실 21실 대출4억 교환도 가능 8억8천
◦ 대인동 소방도접 상업지역 786㎡(238) 오피스텔·생활주택·다세대적합 금남로 5가에 있음 9억2천
◦ 대인동 4층 식당 건물 대지 149평 은행6억4천 매도8억
◦ 광산구 신창동 6차선과 4차선 도로 코너 대지302평 건물은 4층 715평 사옥, 병원, 요양시설, 종교시설 적합 은행 18억2천 전세3억에 월 1600선 수익 증축도 가능 33억
◦ 조선대학교 앞 대로면 동명동 5층건물 대지318㎡(96)건평 736㎡(228) 상가와 주택 있고 원룸15개 투룸3개 보증금 1억2천에 월 500선 수익 매도 9억6천
◦ 순천시 가곡동 상업지 177평 대출 3억2천 매도 3억6천
◦ 북구 두암동 싸우나 건물 대지 101평 건평300평 목욕탕은 직영하고 상가는 보증금 4500만원 월150선수익 은행2억5천 매도 8억
◦ 금남로 3가 부근 식당 대지 62평 건평 128평 5억5천
매도·임대
◦ 매도. 수기동 상업지역 705㎡(213) 원룸·투룸·쓰리룸 92개 허가. 주택기금 12억가능. 투자에 적합 7억2천
◦ 임대·매매. 쌍촌동에 신축중인 가도생활주택 2차 건물 호텔급 시설의 풀옵션 9평형 주택. 입주는 12월 임대는 전세1000에 월 40선. 매매는 6300만원(대출 3천만원 포함)투자자는 여러개를 매입해서 임대하면 수익성이 매우 좋음.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촌동 (구) 등기소 자리, 가도 생활주택 전시관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옥션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근린시설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시설
▷동구 지산동 준주거 3층근린 대지241㎡ 건평307㎡ 감정가4억
▷광산구 쌍암동 일반상업 숙박시설 대지1760㎡ 건평 2821㎡ 감정가46억 최저가26억
▷나주시 송월동 상업지역 6층상가 대지545㎡ 건평 2309㎡ 감정가13억 최저가7억
단독주택
▷북구 장등동 전원주택 대지763㎡ 건평137㎡ 감정가1억8천만
▷북구 운암동 2층단독주택 대지149㎡ 건평161㎡ 감정가1억 최저가7천만
▷나주시 남내동 2종주거 2층주택 대지319㎡ 건평297㎡ 감정가2억3천만 최저가1억3천만
공장및창고
▷북구 대촌동 창고및대지 토지2800㎡ 건물303㎡ 감정가11억 최저가8억
▷광산구 용동 일반공업 2층공장 토지3305㎡ 건물2711㎡ 감정가30억 최저가17억
▷강진읍 송덕리 냉동,저온창고 토지33650㎡ 건물11762㎡ 감정가94억 최저가27억
토지매매
▷동구 내남동 1종주거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750㎡ 상담후 가격조정
▷무안군 해제면 덕산리 관리지역 전,임야 3642㎡ 매매3,500만
▷광산구 지평동 자연녹지 대지,전 2115㎡ 매매5천만(조정가)
☎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영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